

산들

| 퍼낸이,퍼낸곳
한국기독교장로회 예가교회

| 주소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22-41
☎ 756-7707
Fax 756-7607

| 인터넷
<http://yega.org>

| 담임교역자
조익표

| 부교역자
장영진, 조영희

예가교회

**예가교회는,
비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새 가족으로 거듭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함으로써,
완전히 충만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족으로 성장한다.**

금주의 말씀	2
중보기도	5
매일기도	6
성경 자세히 읽기	8
가족소식	12
발에 감추인 보화	14
예가공지	16

“봄날은 왔다”

이제 날씨가 제법 따뜻한 것이 봄이 왔음을 느끼게 된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보라가 몰아치고 사순절 아침기도회에 가려면 내복에 두툼한 겨울 옷을 입고 갈만큼 추웠었는데 3-4일만에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면서 봄기운이 가득하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점점 더 따뜻해지는 날씨를 느끼며 봄은 참 좋은 계절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나와 같은 이유는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노래 가사나 시에서 인생의 좋은 날을 봄날에 비유하곤 하는 것을 보면 봄은 어쨌든 많은 사람에게 좋은 계절로 느껴지는가 보다.

그런데 TV나 문학작품에서 인생의 봄날을 이야기할 때 보면 지나간 인생의 봄날을 아쉬워하거나, 내 인생의 봄날은 언제 올 것인가 한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면서 지나간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거나 아니면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드디어 자기 인생이 꽃필 것이라고 한다. 아무도 지금이 자기 인생의 봄날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자기 인생에서 봄날이 아닌 사람에게는 언제라도 인생의 봄날은 없는 것이다. 또 지금이 자기 인생의 봄날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언제든 봄날인 것이다. 자기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자기 인생의 봄날로 누리고 살면 될 것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본다.

어릴 때는 좋은 것을 받아도 누리지 못했다. 무슨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도 막상 그날이 되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아쉬워하다가 감상에 빠지곤 했다. 그런데 이제는 내게 주어진 것을 좋은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임을 배웠다.

얼마 전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잘 먹고 잘 놀았다. 5일 동안 잔 시간이 20시간이 안 되었고,

먹은 양을 보면 평소에 먹던 것의 2.5일치를 하루에 다 먹었던 것 같다. 전에는 이렇게 지내고 나면 마지막 날쯤 되어서는 끝나는 것이 아쉬워서 감상에 빠지곤 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날도 변함없이 즐거웠다. 다만 너무 먹은 탓에 속이 부대껴서 힘들었지만 말이다. 여행 마지막 날도 즐겁게 지내다니 그래도 그 동안 많이 성장한 것 같다.

지금, 여기서 내 인생이 봄날이라 느끼지 못한다면 내 믿음과 기도가 부족한 것일 것이다.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내 삶을 돌이키고 사랑하는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이 따뜻하고 좋은 봄날에, 인생의 봄날을 만끽하겠다.





■ 오늘 읽은 본문들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식구들을 보면 지혜로워지는 것은 어려운데 어리석어지는 것은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액션영화에서 인질과 돈, 혹은 물건과 돈을 교환하는 장면을 보면, 서로 믿지 못해 죽일 듯이 대치하는 그 때 대

부분의 사건사고가 일어납니다. 교환을 위해 만나기 전에 서로 많은 준비와 거래를 했을 텐데도, 정작 교환 장소에 와서는 사고가 납니다. 일 분이면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될 것인데 마무리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인 관계로 돌변합니다. 많은 영화에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보면 현실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사고가 많이 나는가 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양쪽이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질교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서로가 믿지 못해서 그렇다고 쳐도 마약 같은 물건을 거래하는 놈들은 처음에는 서로 우호적으로

장사를 하려고 만났음에도 사고를 칩니다. 서로 믿으니까 거래하자고 했고 거기까지 왔을 텐데 서로 상대방이 언제 변심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양쪽 다 갖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부동산 거래를 그냥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들이 복덕방이라고 하는 데서 했는데 이제는 부동산 거래를 중재하려면 공인받은 공인중개사가 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공증제도 같은 것들은 충갈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자라는 소위 믿음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입니다.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 만일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불이익이 닥칠 것이라고 위협하며 변심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하나를 생각해 보면 둘이 만난 목적이 돈인데 각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났기 때문에 서로 믿기 힘든 것입니다. 다했을 때 먼저인 지 달같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쁜 놈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대체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가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줌밖에 안되지만 좀 믿음이 있어서 믿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유아들도 하는데 어른들이 못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고 슬프습니다. 액션영화의 교환 장면에서 그냥 편하게 주고 받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대치 국면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시시때때로 팽팽한 대치국면으로 치닫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한 발짝 떼면 상대방이 배신할 수 있다는 불신들이 바닥에 깔려있습니다. 예가교회에서 사고가 안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돈 거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이에 모든, 어떤 형태의 돈 거래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첫째 이유는 우리가 실력이 안되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가 실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안 다루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공부시간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나라, 네가 좋고, 너를 만나면 기분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고맙고, 그리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립고, 만나고 싶고, 내가 무엇이든지 너에게 잘해주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좋지 않겠느냐고 배웁니다. 내용상 여기에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 얼마나 정말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내용상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못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이 딱 그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좋겠다고 다 알지만 안 갑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괜히 나만 뛰고 다른 사람들은 안 뛰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는데 저는 당신보고 그렇게 살라고 한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저주저하며 살아가며 무엇을 찾아먹겠다고 여기 남아 있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 분도 채 안 걸리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결심해서 그렇게 실행되는 데까지는 일 분이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십 년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일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못 가면 없는 것입니다. 제



전도서	9 : 11 - 18
고린도후서	11 : 19 - 30
마태복음서	23 : 1 - 12



가 그것을 지금 이십 년 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빌 머레이는 어느 날부터 아침 여섯 시면 똑같은 침대에서, 같은 날짜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루지 못하면 못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나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지 모르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안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믿는 일은 오늘 안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내일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많이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벌먹고 살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십 년 먹을 계획을 세우고, 삼 년을 준비해서 취직을 했는데 한 달만에 회사가 부도나서 잘립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사는 것이 뭐 대단한 것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진짜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지, 무엇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인지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의 물음에 저야 대답을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그대로 살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말도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너를 좋아하는 삶을 살기로 하고 나만 살면 되는데 눈치를 보고 상대방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관찰을 합니다. 교인되기만을 끝내고 교인등록을 한다는 말은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정한 다음에도 아직 결정이 안 됩니다. 무슨 놈의 결정을 십 년, 이십 년 넘게 매일같이 하고 사는데 무슨 결정장에 갑니까. 그러면 그만큼 했으면 나는 예가교회와 안 맞다, 교회가 나와 안 맞는가 보다 하고 빨리 그만 두면 좋은데 그만 두겠다는 결정도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일 년 내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로 변화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지금 십 년 넘게 계속 새로운 오늘을 밝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의 블랙홀입니다. 언제쯤 되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언제쯤 되야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똑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삽니다. 그런 인생은 세상에 널렸으니,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없이 나가서 사시면 됩니다. 그

래도 나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예가교회 교인이 그 중 좀 해 끼칠 가능성이 약간 낮고, 착하고, 그리고 개중 좀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다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이 믿을만합니까? 서로 결정 못했다는 것이 믿을만한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행태를 이십 년 넘게 보다 보니 이제 지쳐서 말도 안 나옵니다. 저렇게 망설이는 것을 평생 좋아하며 사는구나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망설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미루는 이유는 그것도 정말 짜질한 것인데 결정을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지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양손에 먹을 것을 꼭 쥐고서는 먹는 만큼 먹는 것이 줄어든다고 울며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밥은 먹으라고 있는 것이고 돈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나이 먹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꼭 차였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사람은 선택이라고 하는 망상에 시달리는데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한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취직하려는데 스펙을 엄청 잘 쌓아서 우리나라의 십 대 기업이 다 우리 회사에 와 주십사 해서 선택지가 열 개가 되는 것들을 즐기는데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절대로 자유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장애가 왜 생기냐면 결정하고 나면 권력이 없어질까 봐 그 권력을 즐기면서 십 년 동안 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살면서 인생의 수많은 비밀을 종단으로 헤쳐나가다 보니 인간에 관한 모든 비밀이 거의 다 파헤쳐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든 잘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엄마들과 함께 키우고 중고등학생 때 같이 살면서 잘 압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제 온몸으로 낳은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잘 아는 제가 이따금씩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내일 아침에 새로운 해가 뜨면 우리는 단숨에 하늘나라에 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고 나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 분도 채 안 걸리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결심해서 그렇게 실행되는 데까지는 일 분이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십 년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일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못가면 없는 것입니다.



면 그뿐이고 눈을 뜨면 흠여집니다. 오늘 안에는 끝내야 되는데 안 끝납니다. 늘 새로운 주일이 시작되고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안 되고, 슬프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나는 안 믿고, 내 것은 안 내놓고, 욕심은 사나운데 목사님 말씀이 사랑 하라고 하셨으니까 상대방이 사랑할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내가 먼저 했다가는 병신되는 거야 하며, 계속 선택을 미룹니다. 그러니 인생이 질질 끌려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택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평생 질질 끌려 다니며 사는데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지금 당장 기적이 일어날텐데 안 믿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결정장애를 가진 여러분이 믿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못해서 믿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 보다는 훨씬 투명한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믿어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에 인간에게 닥치는 불행이라는 것은 종류도 많고 시도 때도 없이 닥친다고 나옵니다. 불행의 종류는 한 사람이 한 가지씩 해서 욕심 억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믿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뒤통수 맞지 않겠느냐고 제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뒤통수가 잘났다고 생각할만큼 여러분들이 부자였다면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뒤통수 맞는 것 힘들어 하지 마시고 그냥 맞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소문도 별로 없습니다. 다 자기 잘못으로 얻어 맞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뒤통수 맞을 걱정하며 믿지 않습니다. 믿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뒤통수도 잘난 것 없으면서 결정을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뒤통수 맞을 걱정 없는 인간들인데 결정을 못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결정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오늘 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세상에 할 것이 없는 인간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오늘은 하루라도 한 번 마음을 풀고, 무장 해제 하고, 마음껏 사람을 좋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체면치레하고 긴장하지 마시고 자기 성질 더럽다며 자기 뒤통수 잘났다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무장해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쉬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좋겠고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만큼 사랑하고, 표현하고 싶은 만큼 좋아하고, 표현하고 싶은 만큼 내가 너를 기뻐하고, 표현하고 싶은 만큼 내가 너한테 고맙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해가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한테 기적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무장해제를 안 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리석음에 관해, 지혜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은 이유는 내가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선택지 외에는 갖고 있는 권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행사하려고 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소위 양당제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소수당이 사안별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권력을 즐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믿지를 못하고 있으면 한 순간에 무너져 아무도 남지 않을 수 있겠다, 또 역으로는 믿기만 하면 정말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가 느닷없이 우리 가운데 출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사이에서 불면의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정말 사랑의 나라라는 것은 믿기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살아봐서 알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뒤통수 칠만한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톡 믿으면 됩니다. 이것저것 재면서 내가 손해 아난가 하시는데 그냥 손해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하느라고 여러분 인생을 못사는 것입니다. 정말 괴로운 인생. 늘 노심초사에 걱정 염려로 질질 끌려가는 인생, 그야말로 십 년 먹을 것 준비한다고 일 년을 준비했는데 결국은 하루치밖에 못 얻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지는 맙시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돌이키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까지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멋진 인생을 놓고서 못사는 것에 대해 스스로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는지, 왜 이렇게 나는 안 믿는지, 내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안 믿는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만 생각해 보시고 주일식탁 때까지 가져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서로를 넉넉하게 믿고 옆에 있는 사람들, 교우들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밥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청년들이 김치찌개를 준비했는데 전문가인 창윤이가 웬지 맛이 텁텁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큰 기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드시면 엄청나게 즐겁고 맛있는 식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키워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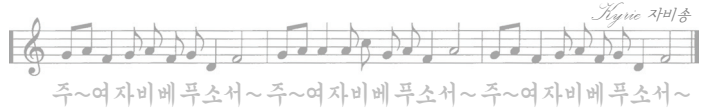
화음 김진승: 유유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신나 류수옥: 큰열매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푸른 김영남: 한가온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불꽃 김강진: 시원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한가온 양세련: 푸른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시원 박주현: 불꽃님을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미리내 황호영: 어울님과 준비해서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드림 황현미: 은석님에게 감사카드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소망 김강민: 에스더님에게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에스더 권영아: 새로운 가족이 된 양현웅님에게 사귀의 문자를 하겠습니다.
 은석 석순화: 가족들과 바자회 준비를 기쁘게 하겠습니다.
 좋은 정상도: 성실님에게 감사 문자와 마른반찬을 선물하겠습니다.
 성실 신정아: 좋은님에게 과일과 감사카드를 전하겠습니다.

찬미 정현옥: 좋은님에게 감사 문자와 선물을 하겠습니다.
 광야 김규동: 좋은님에게 과일을 선물하겠습니다.
 빌립 이종진: 광야님을 대접하겠습니다.
 바다 김진영: 광야님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맑은 최영란: 사론님에게 멸치볶음을 선물하겠습니다.
 나무 하태용: 독립군님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늘빛 김숙정: 아침기도 후 성경 말씀으로 온유님에게 카톡을 하겠습니다.
 샘물 박행수: 사론님을 찾아가서 만나겠습니다.
 온유 유형미: 늘빛님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독립군 이창주: 나무님에게 전화하여 격려하겠습니다.
 마리아 강수진: 해님에게 감사 선물을 하겠습니다.
 달빛 김주영: 보라님에게 감사 선물을 하겠습니다.
 새롬 류정희: 보라님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선물을 하겠습니다.
 아모 박주은: 새롬님에게 감사 선물을 하겠습니다.
 해 석재호: 마리아님에게 감사 선물을 하겠습니다.
 모퉁이돌 이영교: 보라님에게 반찬선물을 하겠습니다.
 진주 이인화: 생명님과 사귀의 시간을 만들고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보라 석순근: 새롬님에게 감사 선물을 하겠습니다.
 사랑 최현숙: 정성껏 준비하여 초록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겠습니다.
 생명 김성원: 가족모임에 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초록 한춘희: 섬김님에게 선물을 하겠습니다.
 섬김 강수덕: 가족모임 때 후식으로 과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씨앗 김은영: 고래님과 말씀 나누고 사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뿌리 조민경: 모란님과 사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란 신연경: 뿌리님과 점심식사를 하겠습니다.
 고래 박지현: 모란님과 사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르다 석순명: 유랑님에게 맛있는 김을 선물하겠습니다.
 희은 박용제: 카라님을 좋아해서 다리 피로를 풀어주는 제품을 선물하겠습니다.
 요한 조현: 즐거운님에게 감사 문자를 하겠습니다.
 카라 이희영: 즐거운님에게 과일을 선물하겠습니다.
 즐거운 이한재: 유랑님에게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



아침 기도

시편찬양

시편 107편 1-3, 17-22절
소리내어 천천히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 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밥맛까지 잃었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그 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 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 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첫 기도

주님,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악마의 유혹을 이기시고, 성령
으로 충만하여 희망 없는 땅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세례
안에서 나를 자녀로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
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하
여, 오늘 하루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희
망 없는 세상에서 새 희망의 증인으로 사
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아멘.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독서

사도행전
15-16 / 17-18 / 19-20
21-22 / 23-24 / 25-26
소리내어

독서송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말씀 밝~히 알~도록 늘도와 주~소서~

주기도

소리내어 천천히

하루의 계획 & 청원 기도

기도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오늘의 일상계획과 말씀실천계획을 적
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를 위한
청원을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 예가교회가 주중에는 사랑과 기도로 예
배를 준비하고, 주일에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와, 구원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조
차 잘못하는 죄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스
스로 괴롭히는 과거의 속박을 끊게 하소
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미
래를 향하여, 사랑하는 존재로 살게 하소
서.

† 예가교회가 돈과 하나님 중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섬겨서, 가진 것을 나
누게 하소서.

† 온 세계와 한국의 교회들이, 화해와 일치
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소서.

† 한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배
인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분단의 고
통을 평화적 통일로 치유할 수 있게 하소
서.

† 예가교회의 교역자들이, 목숨을 다해 교
회를 섬길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의 능력을 주소서.

†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인도자들과
재정과 수고로 덕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사
랑의 기쁨을 주소서.

† 예가교회의 모든 활동이, 예수님의 새 가
족과 새 교향의 꿈을 만들어 가는 일이 되
게 하소서.

† 예가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
는데 필요한, 경제적 필요들을 채워주소서.

† 예가교회의 가족모임이, 사랑을 행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소서.

† 예가교회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지켜주소서.

† 예가 식구들이, 교회의 비전으로 하나되어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비송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주~여~ 자비 베푸소~서~

마침 기도

주님, 지난밤 주님 안에서 편히 잠들게 하시고, 부활의 새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길을 걸을 때나, 차를 탈 때나,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되게 하소서. 아멘.



밤 기도

시편찬양

시편 107편 1-3, 17-22절
소리내어 천천히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 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리석은 자들은,
반역의 길을 걷고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아
밥맛까지 잃었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렀다.
그 때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 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 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널리 퍼뜨려라.

첫 기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줄 모릅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고백과 감사의 기도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합니다.
하루를 돌아보아, 잘못된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잘된 일에는 감사를 드리
는 기도를 적은 후,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기도

천천히, 내용을 따라

마침 기도

생명의 주님,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낮 동안 활기 있게 하신 주님, 자는 동안에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비오니, 오늘 이 밤도 나를 찾아오시어, 주님 은총의 힘으로 새벽에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자세히 읽기

제82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44)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살전1:1)

사도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을 사람을 해방하는 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율법의 조문들은 사람을 해방하지 못한다. 율법의 조문들은 ‘해야 한다’는 당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율법의 조문들은 많다. 그러나, 성령의 법은 단순하다. 똑같은 토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유대교는 그것을 복잡하고 당위적인 다수의 법들로 이해했고, 예수님과 바울은 단순하고 자발적인 하나의 법으로 이해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좋은가? 아니면 복잡한 것이 좋은가? 인간의 사회가 복잡하면, 법도 복잡해진다. 왜 법이 복잡해지는가 하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아니라 법에 호소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까닭은, 사람이 사람을 기뻐하지도, 고맙게 여기지도 않기 때문이다. 누가 나를 도와주면 고마운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법을 따라서 누가 나를 도와주면, 고마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이 통과되어 내가 수혜자가 되면, 나는 그

것을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법에 따라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받는 것이니, 고맙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법에 호소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없어지고, 법만 남는다. 사람에게 대한 고마움이나 기쁨은 사라지고, 법만 살아남는다. 유대인들이 토라를 해석한 결과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법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것과 같은 결과였다. 즉, 유대교의 율법에서 사람은 사라지고, 법만 남은 것이다.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은 안 보이고, 법만 보이게 된 것이다.

교회가 예수님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 제대로 살고 있다면, 많은 법과 규칙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혹시라도 법과 규칙들이 여럿 있다고 해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려고 들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교회는 법이 살아있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이 살아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사랑 외에는 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는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복잡하고, 느리고, 피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 교회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회가 될 수 없다. 법대로 하는 것은 결코 공정한 것도 합리적인 것도 아니다. 불편한 데라도, 일일이 싸우고 화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 사는 사회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예수

님과 바울의 때에는 율법의 조문들이 많았다고, 그것을 당위로 행하고 적용하면서, 인간성이 말살되고 말았다.

바울이 전한 성령의 법은, 법이 살아있고 사람은 죽어있는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법이다.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주셨다. 교회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받고 나니, 그 많은 율법의 조문들이 갑자기 필요 없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장에 들어가 사람의 마음이 되니, 그 많은 율법의 조문들이 필요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성령의 법’을 통해, 죽음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이 받은 저주는 법과 규칙이 지배하는 세상 그 자체이다. 그러한 세상 안에서는 사람도 없고, 따라서 나도 없다. ‘나’가 없으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법이 사람을 대신한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 법은 죽고 사람은 살아난다.

‘사랑하라’는 말씀은 ‘당위’ (should do)가 아니다.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씀의 정반대에 있는 주장이다. 사랑을 당위로 주장하는 순간, 무엇이 되살아나는가? 바로 ‘법’이 되살아난다. 율법의 조문들이 다시 부활한다. 그리고, 사람은 다시 죽는다.



예수님과 바울은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사랑하라'로 가르쳤을 뿐이다. 혹시라도 '사랑해야 한다'는 당위로 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번역이 잘못된 것이다. '사랑하라'는 말씀은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바울 자신이 가본 길 중에서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증언한다. 그는 로마서에서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보니, 죽음의 종노릇 하던 삶에서 해방되었다고 증언한다. 또한, 바울에 따르면,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보니, 그 삶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더라는 것이다. 신적인 삶이더라는 것이다.

예수님과 바울은 당신에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당신이 성경을 읽고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교회 안에 많은 법과 규칙들을 만들고, 법과 규칙을 어기면 제재를 가하는 쪽에 선 것이다. 당신은 법으로 사람을 통제하려 들 것이고, 그렇게 해야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교회가 안정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교회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법과 규칙의 제정과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지난 2천 년의 교회사는 법과 규칙으로 교회의 평화와 안녕과 질서를 추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에서는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있을 자리는 없다.

법이 죽고 사람이 사는 일을 두고, 바울은 그것을 육체가 죽고, 영이 산다고 표현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한다.

특히, 어떤 각도에서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하면, '해야 하는 법' 즉 당위의 법 아래서는, 예수님도 살 수 없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임을 당한 것이다.

'당위의 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살 길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 '당위의 법'을 깨뜨렸다고 보았다. 예수님은 당위의 법 아래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성령의 법'을 끝까지 따라감으로써, 죽음을 뚫고 일으켜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의 법이 사람을 죽음에서 해방하는 법임을 증거하는 사건이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 전체를 걸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킨다. 그는 사랑하는 삶을 십자가라고 불렀다. 물론, 십자가의 길 앞에도 죽음이 있다. 그러나, 십자가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삶을 놓지 않는 것이며, 그리하여 죽음을 뚫고 지나간다. 이 일을 두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전한 바가 있다.

"[1]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2]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롬8:1-2)

고린도전서에서는 70인역 호세아를 인용하며, 좀 더 감격에 젖은 느낌으로 전하고 있다.

"[55]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 [56]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57]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고전15:5-57)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는, 법은 죽었고, 사람은 살아 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사람이 살아있게 하는 자는, 죽음을 뚫고 일으켜지는 생명, 곧 죽지 않는 생명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을 뚫고 지나가는

생명을 받은 존재이다.

바울이 세상을 향해 선포한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소식이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곧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법이나 규칙에 따라 해야만 하는 삶, 죽음 아래 놓인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죽음에서 해방된 삶이 담겨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받고도,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들의 영이 아닌 종의 영으로 행하는 법이 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좋아한다고 말하고, 잘하는 일을 하는데도 괴롭다. 내게 있는 것을 풀어서 나누고, 대접하는데도 여전히 괴롭다. 심지어, 내 목숨을 내어준다고 해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종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기도 밖에 없다고 가르치셨다. 이 점에서는 바울도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소원을 비는 일인데, 내 소원이 바뀌지 않고서는 종의 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보다 기도를 잘 가르쳐야 할 것이고, 기도를 삶의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기도를 어깨 너머로, 풍문으로 배우고 있고,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주기도로 기도하고, 예수님과 같은 소원을 품는 이들도 찾아보기 힘들다. 즉, 예수님과 같은 성령을 받은 이들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인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랑하라’는 말씀은 머리가 아니라 심장에 담는 말씀이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들어온다.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라’고 말하면, 다 아는 이야기라고 대답한다. 사실, ‘사랑하라’는 말씀은, 머리로는 한 번 들으면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머리로 들어서 행하는 말씀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다. 그것은 종의 영으로 받은 법이기 때문에, 기쁨 수도 없고, 감사할 일도 아닌 것이다. 다만, 행하면 행할수록 괴로울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몰려든 사람이 많았던 까닭은, ‘사랑하는 기쁨’과 같은 심장의 느낌보다는 다른 종류의 이익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돈과 권력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도 있고, 그 밖에 다양한 행운들에 대한 소문도 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에 대한 소문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다’는 소문은 끊긴지 오래다.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말씀이 내 심장에 새겨질 때까지는, 안다고 할 수 없다.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때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할 때이다. 형제를 좋아하는 일이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면, 그 때는 그 말씀을 조금 더 알게 된 것이다.

교회는 무엇을 알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살려고 모이는 곳이다. 교회는 무엇을 알려고 배우는 곳이 아니라, 살려고 배우는 곳이다. 교회는 머리로 이해하는 기쁨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으로 땀박질치는 심장의 느낌을 추구하는 곳이다.

같은 믿음으로 사는 형제를 좋아하는 일이, 내 마음에 기쁨으로 차면 찰수록,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나는 살고 있는 것이

다. 그리고, 바로 그 때가 죽음을 뚫고 지나가는 생명을 누리는 때이다.

교회가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로 채워질 때, 법은 죽고 사람이 사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 안에서, 저마다 자기의 생명을 한껏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누가 머리를 꺾고 번개 문신을 하고 다니든, 전봇대를 가지고 이쑤시개로 삼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다니나?’ 불만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랑은 사람을 죽음에서 풀어 해방하고, 자기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한다.

교회가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면, 이는 반드시 세상과는 충돌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교회의 삶은 반드시 세상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삶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 삶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에,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다. 바울과 첫 교회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을 때에도 교회는 안팎으로 점점 늘어나는 적대자들을 상대해야 했다.

생명이 어찌 죽음과 벗할 수 있겠는가? 성령의 법이 어찌 죽음의 법과 동행할 수 있으며, 아들의 영이 어찌 종의 영과 함께 살 수 있겠는가?

오늘날 예수님과 바울과 첫 교회들처럼 세상에 물의를 일으킨 교회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세상보다 못해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있어도, 세상과 근본적으로 달라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법과 규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랑만을 유일한 법으로 삼는 교회, 법이나 규칙은 맥을 못추고, 사람들만이 활기있게 살고 있는 그런 교회의 존재는 충분히 물의를 일으킬만하지 않겠는가? 바울행전이

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에 대해 호의적이었고, 아마도 바울의 믿음을 따라 살았을 법한, 누가는 첫 교회의 탄생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교회로서 세상에서 드러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49]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50]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51]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52]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다섯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53]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눅12:49-53)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가운데서 조용히 선언되고,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호칭이 아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에 다가가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는 거대한 파란을 일으킬만한 선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충분히 충격적이거나 놀랍지 않은 까닭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의 자리,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에게 아직 법은 살아있고, 사람은 상대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모호하면 할수록, 성경도 모호해진다. 반면에,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분명하면 할수록, 성경도 분명해진다.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분명하게 보여야,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충격이 어떤 것인지도 보인다. 적어도, 나의 존재가 종의 영에서 아들의 영으로 넘어간 경우라면, 그 차이나 느낌들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은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쇠귀에 경읽기이다. 들어도 못 알아듣고, 보아도 못 본다. 머리로 이해해도 소용없다. 그 선언이 내 심장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문자이지 살리는 문자는 될 수 없다.

성경은 애시당초 ‘종의 영’을 가지고는 읽을 수 없는 책이다. 아무리 열심히 읽고 연구해 봐야, 뛰어난 율법학자들 정도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당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책이며,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나 제대로 쓰임새가 되는 책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경은 나의 이야기이며, 내 삶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아들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어 주는 책이다.

복음서가 어렵고, 바울서신이 어려운 까닭은, 그 책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읽혀지는 책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읽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전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떤 대단한 설명력이 있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책이다. 목사는 자기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교인은 성령을 받아야 목사가 깨달은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

오늘날 교회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까닭은, 목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이다. 목사가 성경을 읽고 해설해 주고, 목사가 자기 삶에 대해 여러가지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다. 다른 불

만사항들이 많아도, 목사가 마음에 들면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남아있으려 한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은, 목사는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지 않아도 교인들이 많이 모이더라는 것이다. 갓 목회를 시작한 목사들은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부러워한다. 그래서, 그 비결을 연구한다. 그 비결이라는 것은 설교의 기술, 상담의 기술 같은 것들이다. 즉, 말을 잘하는 기술이 우선이다. 물론, 이 기술에는 쇼맨십이나 유머 같은 것은 필수이다. 거기에는, 세상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겸하고 있으면 더욱 좋다. 그래서, 신문도 열심히 읽고, 교양서도 탐독한다. 최근 교회개혁의 경향을 보면,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나 ‘일의 신학’ (theology of work)이 유행하고 있다. 교회를 개척할 때에, 아예 창업과 동시에 개척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카페나 도서관을 만들어, 평소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책도 읽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을 상대로 교인을 세우는 방식들이 유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면,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방법이나 기술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생 교회들이 기존 교회에 대해 갖고 있는 비판의식은, 기존의 교회는 ‘너무 크다’는 것이다. 커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크기 때문에, 양질의 목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교회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사이즈를 줄이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목회하는 양질의 목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문제 삼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교회는 지난 2천 년간 별의별 시도를 다했어도, 세상처럼 ‘괴로운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교회를 움직이는 법은 성령의 법이고, 교

회는 성령을 받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자기 심장으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공동체이다. 이러한 교회의 자의식이 교회 전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바탕에 깔려있는가가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뚫고 지나가지 못하면, 무엇을 해도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된다.

목사도, 교인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1순위에 놓여있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헛되고, 교인이 3명이 모이는 가정교회이든 100만이 모이는 건물을 가진 교회든 무익하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니, 성령의 법이 없는 교회는 무슨 모양을 하고 있어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직행했으면, 40일도 안 걸릴 거리를 40년이 넘게 걸려서 들어갔다. 그런데, 교회는 첫 교회들 이후 적어도 1600년 이상을 헤매고 있다. 이스라엘이 40년 걸린 것에 비하면, 다시 거기에 40을 곱한 만큼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이다.

바울의 편지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읽어야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교회로 살 수 있다. 어느 때보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일이 절실한 때이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족의 1분 스피치 & 사랑 이야기



드림가족

에스더님 집에서 조영희 목사님, 초청자 한결(이기쁨)님과 함께 8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에스더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며, 1주기 장소준비자를 맡아 공간을 정리하며 자리를 넓히고 풍성하고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는 것, 성경통독반과 새벽기도회를 한 주 목표로 실천하는 것, 또 교회 아이들과 시간을 내어 대접하며 사귀는 것을 성경구절을 찾아 칭찬과 격려를 하고, 문화상품권과 황태를 선물하였다, 에스더님이 좋아지고 배울 점이 많아진단다, 에스더님이 자매처럼 친구처럼 살갑게 느껴지는 정서적 느낌도 좋다, 한 주간은 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울님에게 일대일 만남을 이메일로 보내고, 어울님 캐릭터인 요다가 나오는 이모티콘을 선물했다, 그리고 한라봉을 선물하며 한라봉을 드시고 기운 내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와의 사귀에도 더 열심히 하기를 바랐다, 이사를 하느라 주일예배에 불참하였다, 가족들과 성가대원들에게 초청과 여가주간에 맞는 성경구절을 찾아 아쉽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많은 식구의 음식을 준비하느라 애쓸 에스더님을 생각하며 동태전과 호박전

을 가족모임에 준비해가기로 하였다, 드림님과 일대일 만남 약속을 잡은 후부터 드림님과 만남이 기다려졌다, 항상 모범을 보여 모임준비를 하는 드림님을 따라 하다 보니 준비하는 것이 편해졌고 열심히 일하는 드림님이 더 건강하고 잘 지낼 수 있길 바라며 기도하는 시간이 감사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가족모임에서는 양현웅님이 드림가족이 되어 첫 가족모임을 하였습니다.

소식가족

즐거움님 집에서 초청자 다솜(이지원)님과 함께 7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소식가족 모두가 한 믿음으로 함께 새벽기도회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렸다, 인도자님에게 금요일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간식인 쥐포를 선물했다, 가족을 사랑하는 삶으로 섬기는 마르다님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희은님을 좋아해서 화장품을 선물하기로 했다, 기초화장품을 준비하면서 희은님이 더욱 예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랑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요일 오후에 새벽기도를 진행하시면서 가족들을 사랑하신 것에 대해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유랑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찾는 시간이 즐거웠다, 카라님을 좋아하기 위해서 카라님에게 건어물을 선물하기로 했다, 대관령 황태 덕장에서 제대로 말린 황태를 선물했다, 카라님이 맛있게 조리해서 드실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다, 즐거운님을 좋아하기 위해 감사문자를 하고, 유기농누룽지와 청다시마 튀각을 선물했다, 즐거운님이 더욱 사랑함으로써, 하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를 비는 마음으로 매일 ‘내 사랑’ 호흡기도를 했다, 즐거운님이 더욱 좋아졌고, 즐거운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길이 기쁘고, 감사했다, 즐거운님을 더 좋아하기 위해 이번 초청자와 함께 하는 게임 상품을 준비할 수 있어 기뻐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성실님에게 감사문자를 하겠다, 식탁가족 달빛님에게 감사선물을 하겠다, 초등부에서 같은 반을 맡았던 명화(이정우)님에게 감사 선물을 하겠다”고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성실가족

바다님 집에서 초청자 아람(류재현)님과 함께 7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

는 “성실님에게 감사와 좋아하는 마음으로 과일을 선물했다, 올해에는 화목을 위해 행동하는 광야로 사는 것이 성실님을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기쁘고 즐겁게 함께 생활하겠다, 바다님을 좋아해서 싱싱한 딸기를 선물했다, 진주님과 맛있게 먹을 바다님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 빌립님과 일대일 만남을 하며 즐거운 사귀를 갖기로 하였다,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행하는 빌립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믿음의 형제로 함께 사는 것에 감사하고 반찬선물을 하기로 했다, 보리새우를 양념해서 선물했다, 반찬을 만들면서 빌립님이 드실 생각과 맛있는 냄새에 기분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맑은가족

맑은님 집에서 초청자 자유(김선우)님과 함께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성경통독, 호흡기도하며 독립군님이 밝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문자하며 수건, 장조림을 선물했다, 선물내용이 아쉬워 빵을 선물했다, 한 주간 나무님과 일대일 만남을 준비하며 양식에 따라 만남 짝과 나눌 이야기를 글로 정리했



다. 일대일 만남을 준비하며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독립군님과 아침에 짝기도를 하고 말씀을 찾아 샤론님에게 카톡으로 인사하고 하루를 시작하니 기분이 좋았다. 샤론님과 카톡으로 말씀을 나누며 안부인사를 하였다. 마음을 주고 받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좋았다. 맑은님에게 주방용품과 어머니께서 주신 곡류를 선물로 드리면서 일대일 만남을 하였다. 믿음의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조언을 얻었다. 샘물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샘물님이 좋아하는 김과 쥐포와 문어를 선물했다. 믿음의 문자사귀를 통해 한층 더 샘물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라온(이다혜)님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겠다, 식탁가족 간식을 준비하겠다, 큰열매님에게 카톡을 하겠다, 드림가족 바자회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포도가족

아모님 집에서 초청자 임은경님과 함께 8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아모님을 좋아해서 아모님을 도와서 식사준비를 했다, 가

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다, 또 새롬님에게 봄을 선물하고 싶어서 화분을 샀다, 화분을 고르는데 봄맞이 하는 기분이 들어 좋았다, 해님을 좋아해서 해님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고, 좋아하는 말씀을 나눌 계획을 세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님의 얼굴이 떠올라 환하게 웃을 수 있었고, 선물을 준비하면서 해님의 미소가 떠올라 기쁜 시간이 되었다, 선물을 준비하고, 성경구절을 나누는 것이 그 사람을 기뻐하고, 더 좋아하는 마음을 크게 하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독립군님에게 감사선물을 하겠다, 온유님에게 좋아하는 표현을 하겠다, 다솜(이지원)님에게 좋아하는 성경구절을 나누고, 이모티콘을 선물 하겠다, 섬김님을 격려하겠다, 식탁가족 간식준비를 하겠다, 마르다님에게 반찬선물을 하겠다, 신발정리를 하겠다"고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화음가족

불꽃님 집에서 초청자 지민님과 함께 6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시원님을 좋아해서 밤새 열무김치를 담가서 선물하였다, 화음님을 좋아해서 새우볶음밥과

돈까스를 만들어서 선물하였다, 유유님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소식지에 카드를 동봉하면서 유유님이 더욱 보고 싶어졌다, 신나님의 식단조절을 돕기 위해 가루녹차를 선물하였다, 불꽃님의 직장생활에 필요한 헤어트리트먼트와 헤어젤을 선물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습시간에는 "샘물님에게 선물을 하겠다, 마르다님에게 감사 표현을 하겠다, 명화(이정우)님에게 선물을 하겠다, 카라님에게 식사대접을 하겠다, 아모님에게 감사표현을 하겠다, 에스더님에게 감사표현을 하겠다"고 실천사항을 나누었습니다.

사랑가족

사랑님 집에서 초청자 하마(양동엽)님과 함께 8명이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에는 "사랑님과 일대일 만남을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찾고 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일은, 사랑하지 않았을 때 바로 돌이켜 마음과 몸을 바꾸는 일이라는 것을 나누면서 함께 하는 시간을 기쁨과 감사로 채웠다,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즐거운 고민을 하면서 속옷과 양말을 샀다, 아이

들이 대기명당을 퇴소하는 것을 보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고, 부쩍 자란 모습에 감동하기도 하였으나, 아직도 내 새끼만을 보고 함께 크고 자라는 우리의 대기명당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요람이라는 생각을 안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고 약한 절곡들인지 알게 되었지만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늘 그렇게 불행할 것 같다, 뿌리님을 몇 주째 가족모임과 주일 예배에서 못 봐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다, 여유롭게 시간을 내지 못하는 뿌리님을 찾아가서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얼굴도 보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회사 일을 놓고 웃으면서 대화하는 시간이 뿌리님에게 조금이나마 여유가 되는 시간이 된 듯하여 좋았다, 씨앗님과 일대일 만남을 준비하며 바쁜 일정으로 가족모임에 참여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어서 좋았다, 서로의 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며 함께 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의 보약

포도가족 마리아 강수진

교회를 소개하고 101반에 초대하기 위해 친구를 만났다. 세상사는 이야기와 자기자랑을 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 그러다 문득 친구를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 상담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소개하고 함께 좋아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초대장을 내밀었다. 결과는 '시간이 가면 가겠단' 말을 들었다.

돌아오는 길은 허탈했다. 만나기 전 계획은 내가 즐겁고 복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친구에게 당당하게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듣는 강의'를 꼭 들어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내가 친구의 사는 모습을 부러워하는 순간 나의 당당한 모습은 사라졌다.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버는 것이 부럽고, 커리어 우먼으로 목소리 내며 사는 것이 부러웠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배웠던 노예의 삶을 부러워하는 나를 보는 것이 부끄러웠다. 집에 돌아와서는 우울해져서 오후 내내 누워있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더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안되겠다 싶어서 호흡기도를 하고 아침기도를 하며 가족들을 사랑할 계획을 세우고 가족들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니 가족들이 보고 싶고, 가족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가족들과 함께 건강식을 먹고 싶어서 삼계탕을 하려고 했다. 대추, 수삼, 황기 등 좋은 재료들을 골라 정성을 다해 끓여 가족들과 함께 먹으니 보약이 따로 없다. 이 삼계탕은 나를 치료해준 보약이다.

물론 가족들을 생각하고 끓였지만 장을 보고 만들고 먹으며 내가 치유를 받았다.

이렇듯 사랑하는 삶은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세상의 삶을 기웃거린다. '자랑하고 목소리도 크게 내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비싼 물건도 사고 싶어서 돈을 벌겠다'는 유혹을 뿌리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기 위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겠다.

하나님이 주신 가족 안에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삶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나를 더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겠다.





대기명당

이번 겨울방학 때 진행된 대기명당 워크샵에 대해서 대기명당 서기인 다솜(이지원)님과 서포터즈 서기인 진주님의 글을 실습니다. 워크샵에 대한 두 분의 글을 읽으며 이번 워크샵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서기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대기명당 겨울워크샵: 다솜 이지원

이번 워크샵은 이전에 진행되었던 다른 워크샵들과는 다르게 고2가 반장이 되었던 워크샵이었다.

이번 워크샵에서 고등학생과 수학을 하고 싶어하는 아람(류재현)이는 수학의 정석 인강을 들으며 수학 문제를 외우는 공부를 했다.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프렌즈를 하고 일주일에 2번 다른 언니가 와서 수업을 해주고 도와주면서 영어 회화를 했다.

이번에는 일주일에 2권씩 독서를 했는데 한 권은 단편 소설을 읽고 한 권은 일반 비문학을 읽는 식으로 진행했다. 몇몇 사람들은 독서하는 속도가 늦거나 요약하는 속도가 늦거나 해서 이번에 채우려고 했던 분량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 단편소설을 읽으면서 독서하는 실력과 요약하는 실력이 늘었다.

저학년은 E900과 단어장 암기를 계속 하면서 실력을 키웠고, 특히 도원이와 나래(김정민)이는 단어를 쉬는 시간이나 밤 시간까지 외우게 하고 테스트를 해서 많이 틀리면 복불복 주스를 먹어가면서 총 15판의 단어를 외웠다.

여행가기 전 마지막 한 주는 대기명당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며 지냈다. 하루에 5시간 정도씩 계속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목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 고학년들도 앞으로 대기명당을 어떻게 이끌어야겠다 하는 다짐이 생기고 더 잘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대기명당 겨울워크샵: 진주 이인화

이번 겨울 워크샵은 12월 31일에 입소식을 하고 2월 28일 평가회와 퇴소식을 했다. 이번 워크샵의 인원은 신입생인 이도원과 나래까지 포함해서 학생 9명이었다. 이번 워크샵에는 하마(양동엽)님이 서포터즈에 합류하여 안전책임을 맡았다.

워크샵 프로그램으로는 목사님 강의와 복싱, 요리수업 4회, 프라모델 만들기, 엑셀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영어는 프렌즈 암기와 수학의 정석을 암기하는 수업과 독서수업을 하였다. 또한 2월 11월부터 26일 까지 미안마의 양곤, 낭썰, 만달레이, 바간에 이어 태국의 방콕까지 배낭여행에는 14명이 참여하여 즐거운 여행을 만들었다.

겨울 워크샵에서 목사님은 강의를 통해 '대학은 직업교육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고, 직업의 선택은 쉽고 잘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공부는 무술을 배우는 것과 같이 규칙적인 취침과 기상, 운동, 식사 등으로 몸을 만드는 것이고,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배우는 데 대기명당의 목표가 있다. 글쓰기, 운동하기, 독서하기, 언어능력 키우기, 여행 하기, 생활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청소와 빨래, 음식하기, 정리정돈하기 등등. 세상에서 말하는 교양이나 취미라고 하는 것들이 다 공부다'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셨다.

이번 겨울 워크샵에는 아이들은 저마다 맡은 일상의 일들이 있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

하는 사람, 식사하고 나면 뒷정리를 하는 사람,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 빨래를 맡아서 하는 사람, 방 청소를 하는 사람, 쓰레기통 비우는 사람 등등. 저마다 다른 역할을 맡았다.

음식을 먹는 것도 기준 칼로리를 정해놓았고, 야식도 메뉴를 정해서 먹었다. 서로 깨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상하도록 했으며 미리 예정된 일 외에는 외출을 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2016년 겨울 워크샵에는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지냈고 학생들이 일정을 짜서 즐거운 배낭여행을 하는 것으로 2016년 겨울 워크샵은 끝이 났다.





예가 공지

1. 지금은 사순절기이며, 반가운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이 전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형제를 좋아하는 삶으로 교회를 세우고,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절기로 지냅니다.

2. 오늘 예배 후에는 사랑의 식탁 테이블만 차리고, 곧바로 주일식탁가족과 함께 하는 노래 배우기를 합니다. 사랑의 식탁은 노래 배우기 후에 있습니다.

3. 오늘 낮 2시에는 예배실에서 2016년 워크북 설명회가 있습니다.

4. 목요기도회는 사순절기 중에는 사순절 집회로 대체됩니다. 다음 목요기도회는 4월 1일입니다.

5. 101반 37기는 4월 15일(금) 저녁 8시에 첫 모임을 갖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꾸준히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나 101반 초청장을 이용하여 초청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사순절기는 2월 10일 성회수요일부터 3월 27일 부활주일 전까지입니다. 사순절기 집회 및 사랑의 금식 안내입니다.

1) 새벽기도회: 2월 16일 화요일 새벽 5시에 전체집회를 갖고, 이후 매주 화, 수, 목, 금요일 새벽 5시에서 7시, 가족모임 별로 한 주씩 돌아가며 참여합니다.

2) 성경통독회: 2월 11일 목요일 저녁 8시 첫 모임으로 시작하여,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성경통독을 합니다.

3) 목요세족례 : 이번 사순절기에는 없습니다.

4) 거룩한 금요일 예배: 3월 25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드립니다.

5) 사랑의 금식: 사순절기에는 사랑의 금식을 하고, 매주 모아 화해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사랑의 금식표는 게시판에 있으니, 각자 신청하고 실천합니다.

7. 다음 주 예배위원은 사랑, 생명님입니다. 예배위원은 공지가 나가면, 예배의 뜻을 새기며 기도와 형제를 좋아하는 삶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식탁은 사랑가족이 대접합니다. 3월 봉헌위원은 늘빛님입니다.

날짜 성경읽기

월	열왕기상 11장 ~ 열왕기상 15장
화	열왕기상 16장 ~ 열왕기상 21장
수	열왕기상 22장 ~ 열왕기하 4장
목	열왕기하 5장 ~ 열왕기하 9장
금	열왕기하 10장 ~ 열왕기하 15장
토	열왕기하 16장 ~ 열왕기하 20장

* 소식지의 통독표를 따라 읽으면 한 해에 1독 이상을 하게 됩니다.

* 읽고 난 후 교훈을 1개 적고, 교훈에 따라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1개 적은 후, 그날에 실천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바로 순종이며, 하나님 나라의 누룩과 같아서 비록 작지만 우리의 삶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 예배를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배준비는,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내가 교우들을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YEGA community church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일반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67

건축 헌금 :

농협/ 예가 교회/ 090-01-009271